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옥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현 영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
: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이 옥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조 현 영

인 준 서

조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 간에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경기 소재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총 465명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부모애착척도(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또래애착척도(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청소년용 대인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신뢰도 분석을 하였고, 가설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이원변량분석,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부모애착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았고, 또래애착과 대인불안,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발달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또한 각 변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본 결과, 부모애착을 제외한 또래애착, 대인불안,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각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

변인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모애착은 또래애착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불안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고, 또래애착은 다른 변인들보다 대인불안과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부애착은 모애착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모애착은 또래애착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게다가 또래애착 역시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셋째,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또래애착의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부모애착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매개로하여 대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애착이 높고 안정적일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되며, 따라서 대인불안도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모두 대인불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및 가설 7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 8
- 2. 애착 10
 - 2-1. 애착의 개념 10
 - 2-2. 청소년기의 애착 11
 - 1) 청소년기의 부모애착 11
 - 2)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14
- 3. 대인불안 17
 - 3-1. 대인불안의 개념 17
 - 3-2. 청소년기의 대인불안 19
- 4.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22
 - 4-1.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23
 - 4-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과의 관계 25
 - 4-3. 또래애착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2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30
2. 연구 모형	30
3. 평가 도구	31
4.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35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7
2.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38
3.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의 상관분석	42
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매개효과 검증	46
V. 논의	
1. 요약 및 결론	50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5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차

표 1 전체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차이	42
표 3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	44
표 3-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상관정도 범위	45
표 4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49

그림 목차

<그림1>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모형	31
<그림2> 대인불안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35
<그림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모형.....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해가는 과도기로 인지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발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Elliot & Feldman, 1990).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자의식, 자아정체감 형성 등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자아 발달이 현저히 이루어지는데 아동기에 주로 가시적인 준거에 의해 자신을 평가하고 수용하던 구체적 자아에서 벗어나 보다 추상적이며 내재적인 자아를 탐색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청소년 초기와 청소년 중기로 나눌 수 있는데, 11세부터 14세까지의 청소년 초기는 중학교 시기으로써, 신체변화가 급격하고 피아제의 인지발달인 형식적 조작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심리적, 사회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과 책임을 수용하며, 또래들로부터 지지와 승인, 소속감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시기이다. 반면에 15세 이후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기는 고등학교 시기으로써,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기를 시도하고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업 성적 등을 고민하며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하려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청소년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지고 각기 다른 발달적 특징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청소년기 동안에 정체감, 자율성, 친밀감, 성취 등을 이루어 나아가야하는 것은 두 시기 모두 매우 중요한 과업이고,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부모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에도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동일 연령대의 또래 집단에서의 대인관계는 청소년이 수행하여야 할 여러 발달 과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해주어 사회화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Brown, 1990).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면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 경험도 증가하게 된다. 더욱이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 낼만한 인식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대인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아동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다(Morris & Massia, 1998). 청소년기에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고 성인기로까지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은 정체감 형성의 발달과업이나 학업 성취 등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고, 대인불안 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김남재, 2000).

애착은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하는 것으로, 생애 초기에 애착대상과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 표상을 형성한다고 한다. Bowlby(1988)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 기지로 남아있으며 나이가 들어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어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 Paterson과 동료들(1994)은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애착에 비해 부모애착의 질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지 못했을 경우, 청소년기의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하고 있다(Kenny & Donaldson, 1991;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95). 배성희(1995)의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며,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은 이후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을 기대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73; 한상희, 2005). 즉 애착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달라질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주영(2002)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도 안정적이고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애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은경, 1995; 이정수, 2006). 따라서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애착은 또래애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일생 중 친구와의 친밀감 혹은 대인관계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집단이 청소년기에서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또래에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되고, 또래 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기는 또래집단의 지원이 점차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넘어서는 시기이다(Coleman, 1961). 청소년기에 애착 기능이 또래로 이동될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은 청소년기에 기능에 있어 부모애착과 다른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관해 부모애착만을 고려할 수 없으며,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의미하는 또래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만큼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insworth; 1989).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이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며,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불안을 적게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조혜진, 2006). 노향희(2008)는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과정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부모애착, 정서표현 갈등, 또래애착, 대인불안 간의 관계에서 각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서표현 갈등의 부분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한 부모애착이 높은 수준의 또래애착으로 보완될 수 있고,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대인불안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경험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된 연구가 있는데,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래애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과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래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박애규, 2009).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또래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보다 우울증상 및 대인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낮으며,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부모애착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다(Laible & Carlo, 1999; Hay & Ashman, 2003).

청소년 남녀 학생 모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시기에,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고 또래에 대한 애착은 높게 나타났다(장휘숙, 1997; 오송희, 1999; 김정민, 유안진, 2005; Blos, 1978; Steinberg & Silverberg, 1986). 오경자와 양윤란의 연구(2003)에서 초, 중학생보다 청소년 중기인 고등학생 집단에서,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불안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뚜렷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

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은 대인불안 수준을 보고하였다(La Greca & Lopez, 199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을 보듯이, 또래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또래애착을 볼 수 있다. 또한 애착양상에 있어서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청소년기에는 부모와 또래를 동일하게 주요애착 대상으로 생각하여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Freeman & Brown, 2000). 또한 부모애착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중 하나인 대인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유아기와 성인기의 애착에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착 관계에도 변화를 겪게 되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대인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중학생의 초기 청소년과 고등학생의 중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또래애착이 완전 매개효과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만약에 또래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면, 초기에 부모와의 애착은 대인불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또래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를 통해 대인불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 간의 관계에서 중학생과 고등

학생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달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이런 관계를 확인해봄으로써, 청소년기에 대인불안에 대한 발달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대인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애착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에 대한 연령과 성별의 차이가 있을 것인가?

가설 1-1. 또래애착은 청소년 초기 집단보다 청소년 중기 집단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2. 또래애착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3. 대인불안은 청소년 초기 집단보다 청소년 중기 집단이 더 높을 것이다.

가설 1-4. 대인불안은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높을 것이다.

연구 문제 2.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인가?

가설 2-1.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대인불안과 부적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 3.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또래애착을 통해 대인불안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가?

가설 3-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이전과는 다른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맥락에 있는가에 따라 변화의 정도는 달라진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친밀감, 도덕성, 성적관심, 자율성 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인지적 발달 면에서,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사고의 발달을 이루는데, 청소년들은 인지능력의 변화로 사고, 구체적 사물과 추상적 개념에 대한 사고, 사고과정에 대한 사고, 다차원적이고 상대적인 사고가 있다. 추상적 개념의 사고 발달은 사회적, 이념적 문제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가능하게 하여 우정이나 신념, 민주주의, 공정성 혹은 정직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기초로 하는 대인관계 문제와 정치, 철학, 종교 그리고 도덕성 문제에 관해 추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고능력은 아동기에 비해 더욱 다양해지고 발달되어진다. 청소년의 다차원적이고, 사고에 대한 사고는 어떤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고할 수 있고, 청소년기의 내성, 자의식을 증가시킴으로써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자아정체감 확립을 촉진시키고 이 시기의 심리적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의 사고나 감정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므로 극단적인 자기-몰두에 빠질 수도 있다(Elkind, 1967). 또한 청소년 초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이 자신에게 모인다고

생각하는 상상적 청중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고, 자의식이 강해져서 창피한 상황을 쉽게 잊지 못하게 된다(Elkind & Bowen, 1979). 이처럼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외모와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는 생각에 집착하기도 하며,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독립된 자아감을 형성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의식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Vartanian, 1997).

사회적 발달 면에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특히 가족관계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부모와 점차 멀어지는 시기로 묘사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가족과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이후에도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서도 변화가 생기면서, 청소년기에 겪는 가장 큰 관계의 변화는 또래 관계다. 청소년들은 가족보다 친구나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그들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가치들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얻는다. 청소년들은 주로 또래집단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얻고, 친구와 의사소통 속에서 동료애, 피드백, 현실적인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으려 서로 의지한다. 부모들도 피드백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피드백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Youniss & Haynie, 1992). 청소년기에 또래는 점차적으로 영향력이 증가해 부모와 동등한 정도의 지원제공자로 지각되다가 친구사이의 친밀감이 청소년기동안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장 빈번한 지원제공자로 변화한다. 또한 이시기에 형성된 지원은 청소년의 안녕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Berndt, 2002), 가까

운 지원을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더 우울해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는다. 청소년들은 성별에 상관없이 동성친구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남자들보다 동성친구에 대해 더 많은 정서적 친밀감과 지지적인 관계를 바란다(Windle, 1994). 남자 청소년들은 자기 노출보다는 같이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결속되어 있으며, 종종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다(Frey & Rothlisberger, 1996).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또래들이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며, 또래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된다(Merten, 1996a). 친구들과부터 거부당하고 가족의 애정적인 지지가 없는 아동들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Berndt & Perry, 1990; East et al. 1992).

2. 애착

2-1. 애착의 개념

애착은 Bowlby(1958)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관계이다. 애착 대상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때 안정 애착이라 할 수 있고 애착 대상에 대해 강렬한 애정과 의존성,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민성, 경계 등 혼합된 감정을 느끼는 상태를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할 수 있다(Holmer, 1992).

Ainsworth 등(1972)에 의하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환경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 애착체계를 적절하게 활성화할 수 있고 위협이

해결되면 재빠르게 탐색행동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그러나 불안정하게 애착된 회피적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양육자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고 괴로움의 표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형성한 반면, 불안한/양가적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양육자에게 지나치게 몰두하고 보살핌과 관심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요구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전 생애적 조망에서의 애착의 계속성은 Bowlby(1973)가 제안한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에 기초하였는데, 이는 영아기에 양육자와 형성된 애착의 질적 특성이 이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insworth(1973)는 유아의 내적작동 모델은 낯선 상황에서 부모와 접촉시 반영되며, 이 후의 또래관계의 질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즉 초기의 부모-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 형성의 결과가 후에 발달하는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Mallinckrodt(1992)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우울, 식습관 장애, 부족한 자기 주장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Kenny(1994)는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애착은 영아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 걸쳐 형성되고 지속되며(Main, Kaplan & Cassidy, 1985), 성장과정을 통해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Ainsworth, 1999; Bowlby; 1982).

2-2. 청소년기의 애착

1) 청소년기의 부모애착

청소년기 동안에 애착관계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

은 부모와의 안정애착은 높은 자아존중감, 높은 생활만족, 더 낮은 심리적 고통을 예측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radford & Lyddon, 1993). 청소년기에 불안정 애착은 적응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고, 정신병리에서 위험요소로 간주된다(Rutter, 1990).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와 강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함에 따라, 그들의 친한 친구와 애착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한다(Kerns, Tomich & Kim, 2006). 또한 유아기에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은 청소년기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Allison & Sabatelli, 1988; Bowlby, 1969; 1973, 1980; Greenberg, Siegal & Leith, 1983; Grotevant & Cooper, 1986).

Bowlby(1988)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애착체계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Paterson과 동료들(1994)은 13~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 애착에 비해 부모 애착의 질이 안정적으로 나타나 부모에 대한 내적 작동모델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Bowlby의 이론을 검증하였다(Paterson, Field & Pryor, 1994).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적응이나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장휘숙, 1997; Paterson 등, 1995; Armsden과 Greenberg, 1987; Greenberg 등, 198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현희(1993)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밝혔다. Panini와 Roggman(1992)의 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정적상관 관계가 아동기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므로 발달적 과도기에 애착행동 체계가 더욱 활성화된다는 것을 지지하였다. 나이가 들어 애착대상에 대한 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어도 부모에 대한 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언제나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Armsden & Greenberg, 1987 ; Weiss, 1982). 즉, 청소년기의 정체성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경험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allen & Kur emine, 1995). Greenberg 등(1983)과 Ryan(1989), Ryan과 Lynch(198 9)는 청년 초기부터 후기까지 부모나 친구의 활용에 변화가 없으며 부모에 대한 긍정적 애정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경님(2003)은 부모의 애착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Paterson과 동료들(1994)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청소년의 애착에 따른 성차 및 연령차를 보면, 여자청소년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에 대한 높은 애착의 질을 보고하였고, 아버지에 대해 남녀 청소년 모두 애착의 질을 낮게 보고하였다. Amato(1993, 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위에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 집단의 부모애착 점수가 가장 낮으며, 남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여자중학생 집단의 순으로 부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서태희, 1999).

이처럼 부모와의 높은 애착 안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Raja et al., 1992).

2)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또래에 대하여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말한다. Weiss(1982)는 청소년기의 또래애착의 중요한 측면을 청소년들의 도전을 지지라고 격려해 주는 또래의 능력으로 보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과 교사의 애착은 감소되고 친구간의 또래애착을 더 중요한 지지의 원천으로 본다. 청소년기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고 또래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일생 중 친구와의 친밀감 혹은 대인관계 욕구가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서 또래집단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 또래는 부모보다 더 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게 됨으로써, 또래에 대한 애착은 부모에 대한 애착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69; Bols, 1967; Cooper, 1986).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에게 독립적인 성향이 커지며 또래에게 많은 의존을 하게 되고,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서주현, 유안진, 2001, 김수진, 2005).

청소년기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부모 이외의 사람, 다시 말하면 또래에게로 옮겨가는 시기이고 또래와의 상호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다(Ainsworth, 1989). Raja 등(1992)은 청소년기 동안 부모애착이 계속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또래에게도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밝히면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또래로부터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Steinberg와 Silverberg(1986)는 청소년기 동안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의 애착 대상은 부모에서 또래로 이동하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감소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되어 있고, 문제행동과의 관련성도 증가되었다(Noom, Dekovic, & Meeus, 1999). Musgrove(1964)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에 관한 김윤경과 이옥경(2001)의 연구에서 거부아 집단이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수준이 높았고 학업 성적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도 한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Paker & Asher, 1993).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래집단은 청소년기의 사회성이나 성격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이춘재, 1988).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은 이후에 청소년의 사회생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예리, 2002).

Laible과 Cale 및 Raffaelli(2000)는 부모에 대해 불안정 애착이지만 또래에 대해 안정 애착으로 보고된 청소년들은 불안과 우울이 낮은 수준으로 더 높은 적응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청소년 적응에 있어 또래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 또래 친구가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지지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이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O'Brien, 1990).

Armsden과 Greenberg(1987)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다양한 부적응 행동과 관련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들 연구에서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 불안을 비롯한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오송희(1999)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또래

애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조혜진(2006)의 연구에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향희(2008)는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조절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고, 박애규(2009)의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애착의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또래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에 대한 애착 안정성이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중요할 것이고, 또래에 대한 애착의 안정성과 지지감은 청소년기에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Sharon M. Nelis & Gordon Rae, 2008).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부모애착보다 상대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들이 있으며(Laible & Carlo, 2000; Hay & Ashman, 2003), 부모의 이혼과 같은 역기능적 상황에서도 또래애착이 높은 아동은 더 잘 기능한다는 연구들도 있다(김남숙, 1993; 김옥 & 이완정, 2001). 청소년들은 부모/가족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한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 환경에서 지원을 추구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 청소년기에는 친구와 또래 세계로 향하게 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는 덜 현저해지며 심지어 억제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Blos,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또한 부모와의 부정적 애착 경험을 했더라도, 친구나 학교생활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고, 또래의 지원은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낮춘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볼 때(한미현, 유안진, 1996; Schwarts, Mc Fadyen-Ketchum, Dodge, Petti & Bates, 1999), 또래에 대한 애착 수준이 위험요소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애착의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오송희(1999)는 또래에 대한 애착

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심수정(2003)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또래애착에 대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16~20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 및 또래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보고하였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또래애착의 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Paterson과 동료들(1994)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애착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래애착의 연령별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에서, 또래애착은 남녀 학생 모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시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고 또래에 대한 애착은 높게 나타났다(장휘숙, 1997; 오송희, 1999; 김정민, 유안진, 2005; Blos, 1979; Stein berg & Silverberg, 1986). 또한 애착을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고한 장휘숙(1994)은 청소년들과 대학생의 남녀 모두 연령 증가와 함께 또래 애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바뀌게 됨에 따라 또래 애착이 더 증가하고 영향력이 더 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인불안

3-1. 대인불안의 개념

대인불안은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이거나 사회적 상황에서 대인간 평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인지적, 정서적 경험의 총체적인 불안이다(Leary &

Schlenker, 1982; 김남재, 1996 재인용). 또한 친숙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해 주시되는 사회적 상황을 접하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될 때 느끼는 불안한 정서이며(김남재, 1996),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핵심 증상으로 하는 정신장애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일반적 불안과 달리, 대인불안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대인간 평가(interpersonal evaluation)에서 경험하는 불안으로 사회적, 평가적 상황에서의 걱정, 정서적 고통 등을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강도가 강한 임상적 수준의 대인불안을 대인공포라고 하고, 더 일상적이고 비임상적 수준의 대인불안을 대인불안이라고 한다(김남재, 1996 재인용). 대인불안은 의미상으로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수줍음(shyness), 사회불안(social anxiety), 대인공포, 이성간 불안, 수행불안, 사회적 위축, 사회적 소외, 청중불안, 연설불안, 의사소통불안, 대인거부공포, 데이트불안, 이별불안, 무대공포, 수치심(shame), 당황함(embarrassment) 등의 용어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김남재, 2000). Marks와 Gelder가 처음으로 대인공포증 혹은 대인불안이라는 용어를 소개하였고, 대인불안은 1980년에 DSM-III에서 공식 진단명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DSM-IV(1994)에 의하면 대인불안이란 “낯선 사람들에게 노출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또는 수행적 상황에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을 보이며,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스럽게 행동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극단적인 대인불안을 보이는 경우를 사회 공포증이라고 진단한다.

Sullivan(1953)에 의하면 불안 이론의 기본은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달한 대인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Schlenker와 Leary(1982)에 의하면, 대인불안은 정서적·인지적 열등감, 지나친 자기몰입, 부족한 자기 통제력 때문에 사람 대하기를 불안해하는 증상으로 정의한다. 또한 Beck과 Emery(1985)는 장차 위험이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취약성 도식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활성화 될 때 대인불안을 경험한다고 했다.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2000)는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인지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또한 타인들의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snyder, Smith, Augelli & Ingram, 1995). 대인불안 집단은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상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보이는 자기상도 긍정적이지 않는데(김남재, 2000), 이는 대인불안이 부적응적 사회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대인관계의 회피와 위축뿐만 아니라 직업기능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부적응을 가져오며(Alden & Crozier, 2001), 우울증 등 다른 정신과적 질병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Leucrubier, Y., Wittchen, H.U., Faravelli, C., Bobes, J., Patel, A., & Knapp, M., 2000; 오경자 외, 2002 재인용).

3-2. 청소년의 대인불안

청소년기에 사회적인 관계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하고 주관적인 불편감이나 사회적 맥락의 관련성을 파악해 낼만한 인식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대인불안은 아동의 대인불안에 비해 많이 보고되고 있다(Morris & Masia, 1998). 또한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기에는 전반적으로 대인상황에 대한 불안수준이 증가하고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며, 성인에 비해 타인의 시선에 대한 대인불안이 높은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시형, 허묘연, 오강섭, 1998; Stein et al., 2001; Wittchen et al., 1998). 청소년기의 대인불안은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만난 사람, 학급친구, 선생님, 웃어른 등과 같이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나타나며, 특히 여럿이 모인 집단, 사회에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대인불안이 두드러지게 많이 발생한다(권영배, 1993). 이러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은 청소년들의 정체감 형성, 발달과업이나 학업성취 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김혁곤, 1992). 청소년기의 대인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사회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적응과 발달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된다(Albano, Chorpita, & Barlow, 1996; 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ler, 1994; Last, Perrin, Hersen, & Kazdin, 1992; Rapee, 1995).

사회공포증은 대부분 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일생동안 지속되는 만성적 경로를 밟게 되는 것으로, 최근 역학연구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의 평생 유병율은 남성의 경우 11.1%, 여성의 경우 15.5%로 더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Kessler, et al., 1994). 또한 14-24세의 지역 사회 표집 대상으로 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DSM-IV 사회공포증 평생 유병율은 남성 4.9%, 여성 9.5%로 보고된바 있으며(Wittchen et al., 1999), 사회공포증의 최초 발병 연령은 11.3세~12.3세로 보고되어 있어(Last, et al., 1992), 청소년기는 사회공포증의 발생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집단은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해 위협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미래의 긍정적 대인관계 상황을 경험할 가능성은 과소 추정하고, 부정적 대인관계 상황의 가능성은 과대 추정한다고 보고되었다(Spence, Donovan & Brechman -

Tooussaint, 1999). 청소년기에 대인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유능감, 외로움 등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회피하고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수행에 손상이 있거나, 등교거부, 우울 및 기타 약물 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Cosello et al., 2003; Essau et al., 2002, Stein et al., 2001; Van Ameringen et al., 2003; Clark, 1993; 문혜신과 오경자, 2002 재인용). 또한 대인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를 타인의 의견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거부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온정을 덜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oegels et al., 2001; Caster et al., Johnson et al., 2005). Bruch(1989)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청소년이 타인의 관심을 회피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게다가 대인불안이 높거나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Beidel, D.C., Turner, S.M., 2000, T.L. 2000; Essau, C.A., Conreadt, J. & Petermann, F. 2002). 이처럼 대인불안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많은 문제행동과 갈등으로 표출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문제나 직업 부적응 등 성인기로까지 문제가 이어진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대인불안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인불안을 6개월 추적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초, 중학생보다 청소년 중기인 고등학생 집단에서,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불안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뚜렷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오경자 & 양윤란, 2003). 또한 연령에 따른 대인불안 양상을 살펴본 Rao 등(2007)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더 어린 아동들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광범위한 두려움과 회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의 성차를 살펴보면,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인불안

연구에서는 일관되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대인불안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La Greca & Lopez, 1998). Wittchen, Stein & Kessler(1999)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사회공포증 수준을 보였다. 또한 신희린(2008)의 연구에서도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에 비해 사회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문혜신과 오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대인불안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대인불안 수준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고, 대인불안 하위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다. 최영숙과 김정민(2008)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인 대인불안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대인간의 상호작용에서 불안과 긴장감을 경험하고 타인과의 만남을 심하게 두려워한다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고 성인기로까지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대인불안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및 대인불안의 관계

4-1.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

유아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한 내적 작동 모델은 새로운 관계와 대인관계에 신뢰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각, 정서, 행동을 형성한다. 대인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 형성은 중요한 개념이다. Bowlby(1977)는 인생초기의 애착 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들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물론 정서와 행동의 자기규제 능력에 영향을 주어 이후의 대인관계 형성 시에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였다. 생애 초기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면 자라서 타인이 자신의 곁을 떠날 때 불안해하지 않지만, 대상관계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면 불안에 취약해진다. 따라서 대인 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된다.

대인불안과 애착에 대한 선행연구를 탐색해 본 결과, 대인불안은 반드시 대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양가 애착을 맺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타인과의 상호 용이나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Sullivan, 1953). 안정애착은 애착관계시 안전기지의 역할을 해주어 안정된 정서 상태에서 자신감을 갖고 타인을 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Sroufe, 1996), 애착 양식은 대인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안정애착은 자기존중감과 자기 표현력,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수준, 스트레스 대처 양식, 주변 사람들과 더 빈번하고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및 원만한 대인관계, 수줍음,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김민동, 2003; 박은경, 1993; 오가혜, 2001; 임진영, 장재숙, 2003; 정민현,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o, 1985).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은 성인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인불안의 주요 특징인 타인의 거절에 대한 예상, 성인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Collins & Read, 1990). Peter Muris et al.(2001)은 부모와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보다 불안과 우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Eng et al.(2001)은 불안정 애착이 더 심각한 사회공포 증상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최근 장기적인 유아의 불안정 애착 유형과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불안장애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불안정 애착을 보였던 사람들 중 28%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불안 장애를 겪었다(Warren, Huston, Egeland, & Stoufe, 1997). 이것은 불안정 애착유형이 대인불안의 발달에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김은정, 1999). 신노라(2000)의 연구에 따르면 대인불안은 회피>양가>안정 애착의 순서로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상희(2005)의 연구에서도 대인불안은 안정형<무시형<물두형<두려움형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불안이 낮게 나타났으며(박소진, 2006; 송은혜, 2006, 한상희, 2005),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대인불안과 부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노라, 안창일, 2000; 임지은, 2003; 정민현, 2003; 정영숙, 1994). 배성희(199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인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애착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애착 매개모델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고, 정민현(2003)의 연구에서도 대인불안을 예언하는데 있어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었는가하는 점이 중요한 예언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노향희(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과정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부모애착과 정서표현 갈등,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각각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정서표현 갈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 안전하게 애착된 대학생들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학생들보다 대학생활에서 더 잘 적응하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며 수줍음도 덜 탄다고 한다(Armden & Greenberf,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Kenny & Donals

on, 1991). 또한 Kobak과 Sceery(1988)의 연구에서 안정애착을 갖는 대학생들은 친구들에 의해 더 큰 자아 탄력성을 지니고 더 낮은 수준의 불안과 적대감을 나타내지만, 불안정 애착을 가진 대학생은 큰 불안과 많은 괴로움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불안정 애착은 청년기에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부적응으로도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Kenney & Donaldson, 1991; Armsden & Greenberg, 1987; Bell, Avery, Jenkins, Feld & Schoenrock, 1985). 이러한 점에서 대인불안에 공헌하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Cassidy, 1999), 평생에 걸쳐 형성되고 지속되는 전 생애 관점을 취하고 있다(Main, Kplan & Cassidy, 1985). 따라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애착은 대인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관계

Ainsworth(1978)는 유아의 내적 작동모델은 낯선 상황에서 부모와 접촉 시 반영되며, 이 후의 또래 관계의 질에 반영된다고 보았다. 부모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도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Kerns, 1996; Sroufe, 1988). 반면에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에는 타인을 자신의 요구에 거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어, 탐색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insworth et al., 1978).

홍주영(2002)의 연구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도 안정적이고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애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은경, 1935; 이정수, 2006). Eicker, Englund 및 Sroufe(1992)는 안정 애착된 아동들이 불안정애착 아동들보다 더 많은 수의 친구를 가졌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친구관계의 질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신지영, 2002, 윤소영, 2000). 또한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맺을수록 또래에 의해 좀 더 잘 수용되며 또래관계가 긍정적이고(홍주영, 도현심, 2002; 이경숙 등, 2000; Kerns, Klepac, & Cole, 1996),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에서도 안정애착형이 또래애착에 대한 애착 정도가 높았다(정선옥, 2002). 게다가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가 또래 관계에서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임을 보고하였다(Ainsworth et al., 1978; Sroufe, 1979; Main et al., 1985; Cassidy, 1986; Denham et al., 1991; 고경애, 1983; 김수진, 2005). 또한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불임성이 있으며, 친구들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하였다(이시은, 이재창, 2004). 반면에 부모와 불안정 애착관계를 가지거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신뢰감이 부족하고 소원감을 느끼는 아동과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들에 비해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한 사회기술이 부족하여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기가 쉽다고 나타나면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고윤주, 2000; 도현심, 1998; Eicker, Englund & Sroufe, 1992). Patterson과 Christopoulos(1991)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 능력을 배우게 되고,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고 밝히고 있다. 전효정(2002)은 부모와 안정애착을 경험한 학생의 대부분 60%이상 청소년기에 친구와도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였으며, 부모

와 불안정애착을 경험한 경우 45~70 %정도가 불안형 또는 회피형으로 또래애착을 형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된 청소년의 경우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진숙, 정혜정, 2004),

이처럼 부모애착은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에 대해 안정적이고 높은 애착은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에 대해 불안정하고 낮은 애착은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의미하는 또래애착을 잘 형성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애착만큼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insworth; 1989).

4-3.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

청소년기의 친구와 또래관계는 성인기에 필수적인 개인의 유능감과 사회 기술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Ingersoll, 1989).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래에게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청소년은 높은 사회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La Greca, 1998; La Greca, Dandes, Wick, Shaw, & Stone, 1988; La Greca & Lopez, 1998). 또한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으로부터 사회적 배제의 지각은 불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Leary, 1990).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불안한 아동들은 또래에게서 덜 호감을 받고(Strauss, Frame, & Forehand, 1987), 다른 급우들보다 사회적으로 불

안한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 Greca et al., 1988; La Greca & Stone, 1993). 특히 대인불안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에서 덜 지지되고 덜 수용된다고 보고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청소년기에 또래애착은 사회관계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청소년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년배 집단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장휘숙, 1997), 또래관계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바람직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93; Parker & Aher, 1987). 전효정(2002)은 청소년들이 또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경우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위로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Peter Muris et al.(2001)은 또래와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은 불안정 애착된 청소년들보다 불안과 우울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수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혜진(200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우울과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불안에 매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오송희(1999)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또래애착이 부모애착보다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노향희(2008)는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과정에서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는데,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더 높은 대인불안이 나타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애착보다 또

래애착이 대인불안과 더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불안정한 부모애착이 높은 수준의 또래애착으로 보완될 수 있고,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대인불안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경험으로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애규(2009)의 연구에서는 또래애착이 대인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고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 또래애착의 완전 매개효과가 검증된 바 있는데, 즉 부모에 대한 애착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래애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과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래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불안정한 또래애착을 가진 청소년들은 안정 애착된 청소년들보다 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Scott-Brown & Wright, 2003). 반면에 또래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또래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보다 우울증상 및 대인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낮으며,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Armsden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Hazan & Shaver, 1987; 최지은, 2002, 서주현, 2001, 이정수, 2006, 조혜진, 2006). 즉 또래와의 애착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대인불안이 낮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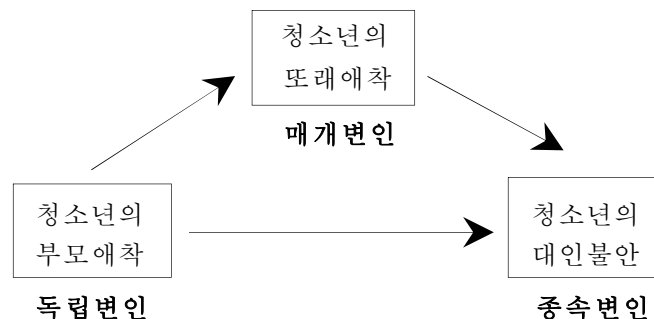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는 2개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24명과 1개의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241명, 총 46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는 총 488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누락된 문항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23부를 제외한 46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방법은 조사대상자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단계 접근 모델을 근거하여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1.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모형>과 같다.



3. 평가 도구

1) 부모애착 척도(IPPA-R)

부모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동료들(1991)이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본(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가운데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옥정이 번안(1998)하여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IPPA-R은 IPPA와는 달리 부모에 대한 애착을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분리하여 같은 내용으로 각각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신뢰감에 관한 10문항(예: 어머니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의사소통에 관한 9문항(예: 나는 어머니에게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소외감에 관한 6문항(예: 어머니는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IPPA-R의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3,6,8,9,10,11,14,17,18,23)은 역채점한 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일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고, 부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고, 모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각 학교 급에서의 내적일치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3로 나타났고, 부애착은 .90이고, 모애착은 .90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4로 나타났고, 부애착은 .94이고, 모애착은 .91로 나타났다.

2) 또래애착 척도(IPPA-R)

청소년과 대학생의 또래와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동료들이 개발한 부모 및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 개정본(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가운데 또래에 대한 애착척도를 옥징이 번안(1998)하여 수정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또래에 대한 애착 척도는 총 25문항이며, 신뢰감에 관한 10문항(예: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내 친구들은 바로 알아차린다), 의사소통에 관한 8문항(예: 어떤 일에 대해 논할 때,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생각해준다), 소외감에 관한 7문항(예: 내 친구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25점에서 12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결과 처리 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4,5,9,10,11,18,22,23)은 역채점한 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또래애착의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각 학교 급에서의 또래애착의 내적일치도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또래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3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경우 또래애착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3) 대인불안 척도(SAS-A)

청소년들이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a 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대인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를 한상희(2005)가 우리말로 번안하고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a Greca와 Stone이 1993년에 개발한 SASC-R(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vised)을 청소년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청소년의 주관적인 대인불안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SAS-A는 “이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봐 나랑 무엇인가 같이하자고 제안하기가 두렵다” 등, 대인관계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기존척도(SAS-A)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요인 중 문항 수가 적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에 2문항,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에 4문항을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추가한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척도(SIAS), 사회적 회피와 불안 척도(SAD), 아동, 및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AS-CA)의 3가지 척도들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과 관련된 문항들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척도의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이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 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 8문항),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 8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평가하여 총 24점에서 12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대인불안의 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이고, 하위척도별로 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9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8,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8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각 학교 급에서의 대인불안 내적일치도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대인불안 척도 모두 .95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의 하위척도별로 보면, 중학생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94,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6,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9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90,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9,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88로 나타났다.

<그림2. 대인불안척도의 3가지 하위요인>

척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내적일치도
청소년 대인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5,9,10,12,16,19,21	.9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4,6,8,13,18,20,22	.88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3,7,11,14,15,17,23,24	.88

3.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전반적인 자료 처리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 SPSS Windows 16.0을 사용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 3)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및 대인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른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의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의 488부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설문 23부를 제외한 46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 집단 중에 중학생은 남학생이 114명, 여학생이 110명으로 총 224명이었으며, 고등학교는 남학생이 113명, 여학생이 128명으로 총 241명이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이 412명(88.6%)이고, 부모가 사망한 학생이 10명(2.2%)이고, 부모가 이혼한 학생이 34명(7.3%), 부모가 별거중인 학생이 9명(1.9%)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를 살펴보면, 가족 수가 총 4명인 학생이 341명(73.3%)으로 가장 많았고, 3명이하가 82명(17.6%), 5명이상이 42명(9.6%)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220명(47.3%), 290명(62.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기술직이 121명(26.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 주부가 179명(38.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월 평균 수입정도)을 살펴보면, 중 수준이 286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상 수준이 104명(22.4%), 하~중하 수준이 69명(14.9%)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명 수	빈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집단	중학생(남)	114	24.5
	중학생(여)	110	24.7
	고등학생(남)	113	24.3
	고등학생(여)	128	27.5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 동거	412	88.6
	부모 별거	9	1.9
	부모 이혼	34	7.3
	부모 사망	10	2.2
가족 수	2~3명	82	17.7
	4명	341	73.3
	5~7명	42	9.0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이하~중학교 졸업	25	5.4
	고등학교 졸업	220	47.3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	184	39.6
	대학원 이상	12	2.6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이하~중학교 졸업	27	5.8
	고등학교 졸업	290	62.4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	114	24.5
	대학원 이상	16	3.4
아버지 직업	무직	8	1.7
	관리직	6	1.3
	사무직	81	17.4
	기술직	60	12.9
	전문직	110	23.7
	자영업	67	14.4
어머니 직업	주부	179	38.5
	관리직	4	0.9
	사무직	58	12.5
	기술직	53	8.0
	전문직	67	11.4
경제적 수준 (가정 월 평균 수입 정도)	자영업	53	14.4
	상	17	3.7
	중상	87	18.7
	중	286	61.5
	중하	58	12.5
	하	11	2.4
	무응답	6	1.3

2.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1) 부모애착

부모에 대한 애착에서 부애착의 경우, 연령($F(1, 461) = 8.188, p < .01$)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3.962, p < .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F(1, 461) = 0.000, p = .986$)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부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의 부애착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의 경우, 부애착과 마찬가지로 연령($F(1, 461) = 6.550, p < .05$)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4.684, p < .05$)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F(1, 461) = 0.147, p = .7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모애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의 모애착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또래애착

또래애착에서 연령($F(1, 461) = 4.475, p < .05$) 및 성별($F(1, 461) = 19.21$)

2, $p < .001$)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6.004$, $p < .05$)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은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또래애착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대인불안

대인불안에서 연령($F(1, 461) = 4.511$, $p < .05$) 및 성별($F(1, 461) = 24.294$,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0.362$, $p = .548$)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불안은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대인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의 경우, 성별의 주효과($F(1, 461) = 22.420$, $p < .001$; $F(1, 461) = 7.871$, $p < .01$)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의 주효과($F(1, 461) = 0.781$, $p = .377$; $F(1, 461) = 2.312$, $p = .129$)와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2.172$, $p = .141$; $F(1, 461) = 2.048$, $p = .153$)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의 경우 연령($F(1, 461) = 7.715$, $p < .01$) 및 성별($F(1, 461) = 30.701$, $p < .001$)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과 성별간의 상호작용효과($F(1, 461) = 0.267$, $p = .605$)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인 불안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고등

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애착과 대인불안 그리고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에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또래애착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애착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데, 또래애착과 대인불안,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모두 여성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차이(two-way ANOVA)

(N= 465)

	중학생			고등학생			합계			연령(A)	성별(B)	A*B	df	F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n=114)	(n=110)	(n=224)	(n=113)	(n=128)	(n=241)	(n=227)	(n=238)	(n=465)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M(SD)						
1. 부애착	90.87	87.41	89.17	82.35	85.88	84.23	86.59	86.58	86.59	연령(A)	1	8.188**		
	(18.10)	(19.42)	(18.80)	(17.37)	(20.32)	(18.53)	(18.20)	(19.89)	(19.06)	성별(B)	1	.000		
										A*B	1	3.962*		
2. 모애착	97.29	94.55	95.95	90.04	93.95	92.11	93.65	94.23	93.94	연령(A)	1	6.550*		
	(13.64)	(18.99)	(16.46)	(13.22)	(19.03)	(16.64)	(13.84)	(18.97)	(16.65)	성별(B)	1	.147		
										A*B	1	4.684*		
3. 또래애착	89.31	92.01	90.64	88.85	98.39	93.91	89.08	95.47	92.35	연령(A)	1	4.475*		
	(16.00)	(15.45)	(15.75)	(15.13)	(13.62)	(15.09)	(15.53)	(14.80)	(15.48)	성별(B)	1	19.212***		
										A*B	1	6.004*		
4. 대인불안 (전체)	53.01	62.52	57.68	57.70	65.13	61.65	55.48	75.95	77.16	연령(A)	1	4.511*		
	(17.36)	(19.76)	(19.14)	(16.79)	(19.72)	(18.74)	(13.09)	(12.34)	(12.75)	성별(B)	1	24.294***		
										A*B	1	.362		
4-1.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	16.17	21.75	19.03	19.87	23.38	21.57	89.60	95.30	92.58	연령(A)	1	.781		
	(7.05)	(8.44)	(8.27)	(6.11)	(6.76)	(6.65)	(13.97)	(11.71)	(13.13)	성별(B)	1	22.420***		
										A*B	1	2.172		
4-2. 새로운 상황에 회피와 불편감	16.17	21.75	19.03	19.87	23.38	21.57	89.60	95.30	92.58	연령(A)	1	7.715**		
	(7.05)	(8.44)	(8.27)	(6.11)	(6.76)	(6.65)	(13.97)	(11.71)	(13.13)	성별(B)	1	30.701***		
										A*B	1	.267		
4-3. 일반적 상황에 회피와 불편감	16.17	21.75	19.03	19.87	23.38	21.57	89.60	95.30	92.58	연령(A)	1	2.312		
	(7.05)	(8.44)	(8.27)	(6.11)	(6.76)	(6.65)	(13.97)	(11.71)	(13.13)	성별(B)	1	7.871**		
										A*B	1	2.048		

* $p < .05$ ** $p < .01$ *** $p < .001$

3.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상관분석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Pearson's 적률 상관계수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우선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따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상관의 양상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한 집단으로 묶어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게다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관의 정도 범위만을 표3-1에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남녀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 모두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 간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3을 살펴보면, 부와 모에 대한 애착($r=.38, p<.01$)은 서로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부애착과 모애착 모두 또래애착($r=.27, p<.01$; $r=.39,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불안($r=-.29, p<.01$; $r=-.39,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모애착이 부애착에 비해 또래애착과 더 높은 정적상관, 대인불안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고 대인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모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대인불안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에 대한 애착은 부모애착에 비해 대인불안($r=-.50, p<.01$)과 더 유의미하게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대인불안이 부모애착에 비해 또래애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부애착($r=-.30,$

$p < .01$; $r = -.24$, $p < .01$; $r = -.23$, $p < .01$)과 모애착($r = -.35$, $p < .01$; $r = -.30$, $p < .01$; $r = -.38$, $p < .01$), 또래애착($r = -.48$, $p < .01$; $r = -.340$, $p < .01$; $r = -.53$, $p < .01$)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애착의 경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r = -.30$, $p < .01$)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경우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r = -.38$, $p < .01$; $r = -.53$, $p < .01$)과 더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지며, 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

구분	1	2	3	4	4-1	4-2	4-3
1. 부애착	1						
2. 모애착	.38**	1					
3. 또래애착	.27**	.39**	1				
4. 대인불안(전체)	-.29**	-.39**	-.50**	1			
4-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30**	-.35**	-.48**	.88**	1		
4-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4**	-.30**	-.34**	.89**	.62**	1	
4-3.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3**	-.38**	-.53**	.91**	.70**	.76**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상관정도 범위

구분	연령에 따른 상관정도 범위						
	1	2	3	4	4-1	4-2	4-3
1. 부애착	1						
2. 모애착	.35~.40**	1					
3. 또래애착	.27~.32**	.36~.45**	1				
4. 대인불안(전체)	-.27~-.28**	-.34~-.42**	-.47~-.56**	1			
4-1.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27~-.31**	-.32~-.38**	-.41~-.55**	.87~.89**	1		
4-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0~-.25**	-.24~-.34**	-.32~-.40**	.87~.90**	.61~.65**	1	
4-3.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2**	-.37~-.39**	-.54~-.55**	.91**	.70**	.75~.76**	1

* $p < .05$ ** $p < .01$ *** $p < .001$

구분	성별에 따른 상관정도 범위					
	1	2	3	4	4-1	4-2
1. 부애착	1					
2. 모애착	.32~.50**	1				
3. 또래애착	.23~.33**	.37~.44**	1			
4. 대인불안(전체)	-.28~-.31**	-.35~-.48**	-.58**	1		
4-1. 부정적 평가 에 대한 두려움	-.30**	-.32~-.44**	-.53~-.56**	.87~.88**	1	
4-2.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22~-.27**	-.30~-.35**	-.40~-.43**	.87~.89**	.60**	1
4-3.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18~-.29**	-.33~-.49**	-.57~-.58**	.90~.92**	.69~.70**	.72~.78**

* $p < .05$ ** $p < .01$ *

1

4.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 사이에서 또래애착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적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후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은 매개변인을 통제 한 후에 그 효과(β 값)가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을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권혜경, 2004; Baron & Kenny, 1986).

1)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우선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검증 역시 한 집단으로 묶어 각 변인간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각 세 변인의 상관관계(표 3)를 살펴본 결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이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면

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므로, 청소년의 부모 애착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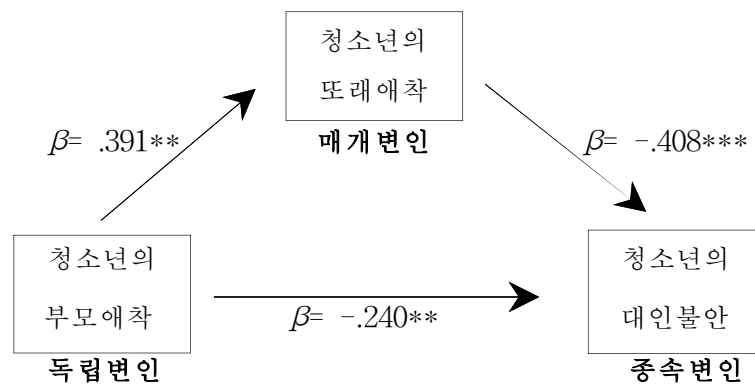
먼저 1단계에서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종속변인인 대인불안에 회귀시켰다. 2단계에서는 부모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매개변인인 또래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시켰다. 마지막 3단계에서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모두 독립변인으로 하고, 대인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시켰다.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표 4, 그림 3에서와 같이 또래애착이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매개하여 나타났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beta=-.400, p<.001$), 두 번째 회귀방정식의 부모애착은 또래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391,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또래애착이 대인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08, p<.001$),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보다($\beta=-.400, p<.001$)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eta=-.240, p<.001$). 그러므로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R^2 ($adj-R^2$)	F
1 독립 → 종속	부모애착 → 대인불안	-.400***	.160(.158)	87.971***
2 독립 → 매개	부모애착 → 또래애착	.391**	.153(.151)	83.656***
3 독립 → 종속	부모애착 → 대인불안	-.240**	.301(.298)	99.408***
매개 → 종속	또래애착 → 대인불안	-.408***	.252(.251)	156.09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3.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2)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Sobel-test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이 방법으로 β 값의 감소가 유의미한 감소인지는 검증할 수 없다. 즉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수준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매개효과의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sobel 검증에서 분자는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추정치 a 와 b 의 표준오차를 뜻한다. 계산된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Mackinnon, Warsi & Dwyer, 1995). 검증 결과, 매개모형에서의 Z 값이 6.75 ($p < .001$)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또래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text{Sobel test: } Z &= a \cdot b / \sqrt{b^2 S_a^2 + a^2 S_b^2} \\ &= .256 \cdot -.501 / \sqrt{-.501^2 \cdot .027 + .256^2 \cdot .052^2} \\ &= 6.75 \end{aligned}$$

V.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첫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달적 변화를 보고자 한다. 셋째,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부모애착 척도, 또래애착척도, 대인불안 척도를 사용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 모두 연령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에서는 부모애착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중학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보다 높았으며,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은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높았게 나타났다.

첫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 부모애착은 낮아지고 또래애착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애착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바뀌게 됨에 따라 또래 애착이 더 증가하고 영향력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시기에 남녀 모두 연령 증가와 함께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고 또래에 대한 애착은 높아진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장휘숙, 1994, 1997; 옥정, 1998; 오송희, 1999 ; 김정민, 유안진, 2005; Blos, 1979; Steinberg & Silverberg, 1986).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더 좋다는 이진숙(2002)의 연구와 일치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적 차이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고자 하며 또래에게서 지지와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인불안의 경우,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대인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초,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집단에서,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인불안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뚜렷해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오경자 & 양윤란, 2003).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인 관계와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인상황에 대한 불안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불안의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나타났으며,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은 고등학생 집단이 중학생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이 초, 중, 고등학생의 연령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오경자 & 양윤란, 2003).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을 제외한 또래애착, 대인불안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첫째, 모애착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의 애착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오송희, 1999; 지수경, 2001)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애착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결과(신재은, 1999; 이정수, 2006; Labile, Calo & Roesch, 2004, 김수희, 2009)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부애착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 애착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신재은, 1999; 채진선, 2007)와 상이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오송희, 1999; 신재은, 1999; 지수경, 2001; Labile, Calo & Roesch, 2004; 이지연, 2007; 노향희, 2008, 김수희, 2009)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Armsden & Greenberg, 1987; Lapsley et al, 1990; Paterson. et al, 1994; Nada-Raja et al, 1992; 옥정, 1992; 1994; 오송희, 1999; Amato, 1993, 2000; Labilble et al, 2000; 심수정, 2003; Wilkison, 2004; Gullone & Robinson & Robinson, 2000 & 홍숙영, 2007, 김수희, 2009). 이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 친구관계 및 정서적 유대가 더 중요한 관심이며,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단짝친구를 선호하며 또래애착이 보다 친밀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대인불안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인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들의 대인불안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혜신과 오경자(2003)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높은 대인불안 수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여 나타났다(La Greca & Lopez, 1998; Wittchen, Stein & Kessler, 1999; 오경자와 양윤란, 2003). 이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대인불안과 더 강하게 관련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인불안의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일반

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불안 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고하였으나 그 외의 요인에서는 성별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오경자와 양윤란(2003)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났지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서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에서 일치하였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최영숙과 김정민(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대인불안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관계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정적상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대인불안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첫째, 부애착은 다른 변인들보다 모애착과 서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모애착은 또래애착과 서로 높은 정적상관, 대인불안과 서로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애착이 높을수록 모애착이 높고, 모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모애착이 낮을수록 대인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자녀 애착이 또래애착과 정적상관, 대인불안과 부적상관을 갖는다는 노향희(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둘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고 안정적인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은 낮아지고 불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

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이고 높을수록 또래에 대한 애착도 안정적이고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던 연구(홍주영, 2002; 이수하, 2005)와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청소년기의 또래와의 애착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여 나타났다(이정수, 2006, 이은경, 1993; Eicker, Englund 및 Sroufe, 1992; MacDoneld & Parke, 1984; Patterson & Christopulos, 1991; 신지영, 2002; 윤소영, 2000).

셋째,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은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아지는 반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대인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여 나타났다(김민동, 2002; 배성희, 1995; 한상희, 2005; 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부애착이 대인불안의 하위요인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모애착은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부애착이 낮을수록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모애착이 낮을수록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또래애착은 다른 변인들보다 대인불안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또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낮아지는 반면, 또래에 대한 애착이 낮을수록 대인불안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더 높은 대인불안이 나타나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노향희, 2008)와 또래애착이 대인불안과 높은 부적상관을 갖으면서 또래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던 연구(박애규, 2009; 조혜진, 2006)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또한 또래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또래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보다 우울증상 및 대인불안을 나타낼 가능성이 더 낮

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여 나타났다(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Hazan & Shaver, 1987; 최지은, 2002, 서주현, 2001, 이정수, 2006). 또한 또래애착이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는데, 이는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대인불안 간에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면서 또래애착의 부분매개 역할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애착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매개로하여 대인불안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래애착은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애착이 높고 안정적일수록 또래애착이 높고 안정되며, 따라서 대인불안도 낮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낮으면 또래애착의 수준과 상관없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써,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또래애착을 통해 완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박애규, 2009)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반면, 부모애착이 높고 안정적일수록 대인불안이 낮았다는 연구결과(박소진, 2006; 송은혜, 2006; 김민동, 2002; 배성희, 1995; 한상희, 2005; Armsden & Greenberg, 1987)와 일치하여 나타남으로써,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연구와 달리 대인불안에 부모애착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애착과 대

인불안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보다 상관이 높았고 유의성 역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은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래애착 역시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은 불안정한 청소년에 비해 대인불안을 더 적게 경험할 것이라는 연구결과(Armsden & Greenberg, 1987; 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Hazan & Shaver, 1987; 이은경, 1993; 이정수, 2006)와 일치하여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가 불안정한 또래애착을 형성하게하고, 불안정한 또래애착은 다시 대인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은 모두 대인불안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청소년의 발달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는 대인불안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남녀 청소년 모두 높아졌는데, 이는 대인불안이 안정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또래애착이 부모애착에 근간을 두고 대인불안과 같은 여러 문제행동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잘 형성되도록 해주며,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2.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청소년기의 대인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들 변인들을 함께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였고, 유아기와 성인기의 애착에 편중되어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을 모두 관련시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특정한 연령대만을 선정하여 연구한데 비해 본 연구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집단을 선정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발달적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에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을 비교하여 발달적 변화를 도출하고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대인불안 척도인 SAS-A의 하위요인들의 문항수의 부족으로 인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는 SAS-A 척도의 하위요인 문항수를 추가하여 수정 제작함으로써 척도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인불안을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거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의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점을 감안했을 때, 본 연구는 애착과 함께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나 또래애착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거나 이들 변인간

의 영향력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매개 검증을 통하여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기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대인불안사이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매개효과 검증과 sobel-test의 유의도 검증을 통해 또래애착의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대인불안에 직접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을 통해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모두 대인불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래애착이 부모애착에 근간을 두고 대인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대인불안에 대한 발달상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대인불안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애착 뿐만 아니라 또래애착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광범위한 지역의 표집대상을 여러 학년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질문지는 모든 변인을 청소년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왜곡과 방어기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점과 오류 가능성이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자기보고식을 보완할 수 있는 질적인

면접법이나 부모와 같은 여러 보고자에 의한 답변 차이를 비교하는 객관적인 평가와 다양한 방법들을 후속연구를 통해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높고/안정, 낮은/불안정 정도로만 측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애착을 4가지 유형인 안정형, 두려움형, 몰두형, 무시형으로 나누어 유형에 따라 살펴보거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을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척도별로 세분화하여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와 관계, 매개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애착과 청소년의 대인불안을 더욱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 문헌

- Laura, E. Berk ; (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이옥경, 박영신, 이현진, 김혜리, 정윤정, 김민희 역 (2009). 《생애발달 II: 청소년기에서 후기 성인기까지》. 시그마프레스.
- 고경애 (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권, 2호. 65-79.
- 고재홍, 심보숙 (2008). 부모-아동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인간 연구, 제22권, 133~163.
- 권영배 (1993). 자기표현훈련이 국민학교 아동의 대인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은 (2002). 부모 및 또래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혜경 (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 동기와 자아간도를 매개변인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숙 (1993).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재 (1996). 우울과 대인불안의 인지적 특성 비교. 덕성여대 논문집, 25.
- 김남재 (2000). 대인불안과 사회적 자기 불일치.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478-483.
- 김남재 (1996). 대인불안에서의 귀인 양식 그리고 우울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4권, 19-33.
- 김남재 (2000). 대인불안에 대한 자기제시 모형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6권, 23
- 김민동 (2003). 애착유형과 자기개념 우울 및 불안과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진 (2005). **고등학생의 애착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지각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예리 (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옥, 이완정 (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애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3호, 31-41.**
- 김윤경, 이옥경 (2001). 사회정서발달 : 아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권, 2호, 65-83.**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정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진 (2008).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우울과 갈등해결전략의 중재 및 매개효과**.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내, 임성문 (2007). 부모 및 또래애착과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과의 관계: 자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제14권, 315~344.**
- 김정민, 유안진 (2005).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의 우울과 외로움: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2(4), 159-176.**
- 김정호, 조용래, 이민규 (2000). 사회불안과 우울의 자기개념에 대한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권, 1호, 1-15.**
- 김혁곤 (1992). **대학생의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향희 (2008). **애착, 정서 표현갈등, 그리고 대인불안 사이의 관계: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도현심 (1998). 인성특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권, 12호, 1-9.**

- 도현심 (1999). 부모에 대한 애착 및 또래경험과 초기 청소년의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Vol.20, No.3
-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1(2), 429-443.
- 민영숙 (2006). 초등학교 5,6학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 계와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애규 (2009). 부모애착과 청소년의 우울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은경(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의순 (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 부부의 사랑, 대부모 애착, 부부애착과 부부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윤선 (2007).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소진 (2006). 여대생의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에 대한 경로모형: 신체상과 자존 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성희 (1995).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대인불안과의 관계. **카톨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태희 (1999). 중·고등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부모 애착수준과의 관계. **동국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은혜 (2006). 애착, 대처방식, 희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 신노라 (2000). 성인애착유형과 대인불안 수준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애착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

- 지지 수 준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지영 (2002).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혜린, 이기학 (2008).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한국심리 학회지: 일반**. Vol.27, No.1, 139-159.
- 심수정 (2003). **중학생의 또래에 대한 애착정도와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재은 (1999). **청소년의 애착 및 우정관계와 또래 괴롭힘간의 관계**. 이화여자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혜원 (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 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가혜 (2001). **수줍음과 우울에 대한 관계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 배도희, 김영아, 양재원 (2002).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얼굴표정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3), 533-54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권 3호, 557-57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I : 6개월 추적조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권 3호, 557-597.
- 오송희 (1999).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 사 학위 논문.
- 옥정(1997).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 성향과의 관계::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2, No.1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

- 민감 성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11, No.1, 51-59.
- 이수하 (2005).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허묘연, 오강섭 (1998).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양육태도검사의 개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vol.9, no.2, 198-208.
- 이시은, 이재창 (2004).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질적 분석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07-226.
- 이은경. (1995). **지각된 부모 자녀 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수 (2006).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 감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연 (2007). **또래애착이 초기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자존 감과 수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Vol. 15, No. 2, 81-95.
- 이진숙 (2002).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지은 (200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진영, 장재숙 (2003). 어머니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장휘숙 (1994). 발달심리학 연구에서의 중재와 조절 : 자기효율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권, 1호, 210-220.
- 장휘숙 (1997). 청소년의 애착과 MMPI 하위척도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6권, 2호, 323-341
- 장휘숙 (2007). **전생애 발달심리학 제4판**.

- 전효정, 이귀옥 (2000).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 애착전이모형 검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권, 1호, 185-199.
- 전효정,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9권, 2호, 191-210
- 정민현 (2003). **애착유형, 스트레스대처방식과 대인불안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선옥 (2002). 가정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애착유형 및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권. 149-173.
- 정옥분 (2005).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정현희 (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조혜진 (2006). **청소년의 또래 애착과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지수경 (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숙, 김정민 (2008). 비합리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2호, 103-114 .
- 최지은 (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상희 (2005). **청소년의 애착 유형과 대인 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숙영 (2007). **부모애착, 부모 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주영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dams, G., & Gullotta, T. (1989). *Adolescent life experiment*. Belmont, CA: Wadsworth.
- Ainsworth, M. D. S. & Bell, S. M. (1972). Infant crying and maternal responsiveness. *Child Development*, 43, 1171-1190.
- Ainsworth, M. D. S. (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N. J. Erlbaum.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S. (1999). The functions of multiple representations. *Computers and Education*, 33(2e3), 131e152.
- Albano, A. M., Chorpita, B. F., Barlow, D. H. (1996). Childhood anxiety disorders. In E. J. Mash & R. a. Barkley (Eds.), *Child psychopathology*. New York: Guilford Press.
- Alden, L. E. & Crozier (2001).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259 - 279.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e335). New York: Guilford Press.
- Allison, Michael D. and Sabatelli, Ronald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3, No. 1, 1-16.
- Amato, P. R. (1993).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23-38.
- Amato, P. R. (2000).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269-1278.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37-1182.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ent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r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 Emery, G.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eidel, D.C., Turner, S.M., Morris, T.L. (2000). Behavior treatment of children social phobia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1072-1080.
- Bell, N.J., Avery, A.V., Jenkins, D., Feld, J., & Schoenrock, C.J. (1985).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compete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09-111.
- Berndt, T. J.(2002).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s: Myths, Truths, and Research Recommendations.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30.
- Berndt, T. J.(2004). *Children's Friendships: Shifts Over a Half-Century in*

- Perspectives on Their Development and Their Effects. Merrill-Palmer quarterly, behavior and development. Vol.50 No.3.
- Berndt, T. J., & Perry, T. B. (1990). Distinctive features and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pp. 269 - 287). Newbury Park, CA: Sage.
- Boegels, S.M., van Oosten, A., Muris, P., & Smulders, D. (2001). Familial correlates of social anxie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9, 273-287.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ew York.
- Bol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and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logical Study*, 162-18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II. Some principles of psychotherap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421-431.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 Hogarth Pres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Basic Books, New York.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 Bradford, E., & Lyddon, W.J. (1993). *Current parental attachment: Its relation to*

- perceived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4, 256-272.
- Brown, B. Bradford Feldman, S. Shirley (Ed); Elliott, Glen R. (Ed).(1990). Peer groups and peer culture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pp. 171-196).
- Bruch, M. A., Heimberg, R.G., Berger, P., & Collins, T. M. (1989). Social phobia and perceptions of early parent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xiety Research*, 2, 57-65.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Caster, J.B., Inderbitzen, H.M., & Hope, D. (1999). Relationship between youth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3, 237-251.
- Clark, D. B. (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r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Coleman, J.(1961).The Adolescent Society:The Social Life of a Teenager and Its Impact on Education ,Basic Books, New York.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64-663.
- Cooper, C. R., Grotevant, H. D., and Ayers-Lopez, S. (1986). Links between patterns of negotiation in adolescents' family and peer interactions.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Costello, E.J., Mustillo,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 (2003).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 837-844.

- Denham, S.A., Renwick, S.M., Holt, R.W. (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ro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n, F. (2002). Course and outcome of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 67-81.
- East, P. L., et al.(1990).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8, 163-172.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77-106. Hillsdale, NJ: Erlbaum.
- Eliot, G., and Feldman, S.(1990). Capturing the adolescent experience. In Feldman, S., and Eliot, G.(eds.),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Wiley, New York, pp. 119 - 150.
- Elkind, D. (1967). Egocentrism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32, 551-560.
- Elkind, D., and Bowen, R. (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8-44.
- Eng, W., Heimberg, R. G., Hart, T. A., Schneier, F.R., & Liebowitz, M.R.(2001).
- Attachment in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Emotion*, 1, 365 - 380.
- Essau, C.A., Conradt, J., & Petermann, F. (2002). Course and outcome of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6, 67-81.

- Freeman, H., & Brown, B.B. (2000). Primary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 Differences by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6).
- Frey, Conrad U. and Riithlisberger. Christoph. (1996). Social Support in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No. 1.
- Greenberg, M.T., Siegel, J.M., & Leitch, c.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oscence*, 12 (5), 373-386.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rtup,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 l.- No.60.
- Hay & Ashman, (2003).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Emotional Stability and General Self-Concept: the interplay of parents, peers, and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 bility, Development and Education*, 50:1, 77-91.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 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Idan M. Aderka,, Ora Weisman, Golan Shahar, Eva Gilboa-Schechtman. (2009). The role s of the social rank and attachment systems in social anxiety. *Personalit y and Individu al Differences*. 47, 284 - 288.
- Ingersoll, G. M. (1989). *Adolescents*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Johnson, H.S., Inderbitzen, H.M., & Schapman, A.M. (2005). A comparison betwee n socially anxious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th: a focus on perceives family enviroment. *Anxiety Disorders*, 19(4), 423-442.

- Kenney, M.E., & Donaldson, G.A. (1991). Contribution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Kenny, M. E. (1994). Quality and correlates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late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399-403.
- Kerns, K. A. (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friendship quality: Links to child - mother attachment. In Kerns, K. A., Tomich, P. L., & Aschmann, A. E., and Tomich, P. L.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Kerns, K. A., Tomich, P. L., & Kim, P. (2006). Normative trends in children's perceptions of availability and utilization of attachment figures in middl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15*, 1-22.
- 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ler.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8-19.
- Kern, L.R., Klepac, L., & Cole, A.K.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2*, 457-466.
- Kobak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La Greca, A. M., Dandes, S. K., Wick, P., Shaw, K., & Stone, W. L. (198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a Greca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83-94.
- La Greca, A. M. (1998). Manual for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Miami, FL: Author.
-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45-59.
- Lapsley, D., Rice, K., & FitzGerald, D.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68, 561-565.
- Last, C. G., Perrin, S., Hersen, M., & Kazdin, A. E. (1992). DSM-III-R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Socio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1070-1076.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221-229.
- Leucubier, Y., Wittchen, H.U., Faravelli, C., Bobes, J., Patel, A., & Knapp, M. (2000). A European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European Psychiatry*, 15, 5-16.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n the Societ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4.

- Mallinckrodt, B. (1992). Childhood emotional bonds with parent, development of adult social competencies, and availability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 453-461.
- Marks I. M., Gelder M. G.(1966). Different Ages of Onset in Varieties of Phobi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3*, 218-221.
- Merten, J, (1996a). Emotional Experience and Facial Behavior During the Psycho therapeutic Process and its Relation to Treatment Outcome: A Pilot Study. *Psycho therapy Research, 6: 3*, 198-212.
- Morris, T. L., & Masia, C. L. (1998). Psychometric evaluation , & Mas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 al Child Psychology, 27*, 452-458.
- Musgrove, Frank.(1964). Youth and the social order.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 Noom, M. J., Dekovic, M., & Meeus, W. H. J.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 771-783.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 258-275.
- Parker, J.G., Aher, S.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2(3)*, 357-389. Parker, J.G., Asher, S.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 Friein MiddlePsychologi: Linkol 102(Peer Group Acceptance and Fe Links of Lon 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89. *opme ntal Psychology. v29, n4*, p611-21.
- Paterson, J.E., Field, J., & Prior, J.(1995) .Adolescents'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a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79-600.

Patterson, Charlotte J., Christina Christopoulos.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8, No. 3, 315-346.

Peter, M., Cor, M., Marion, M., & Linda Z. (2001). Self-report attachment style, attachment quality, and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in you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809-818.

Raja, Shyamala Nada.(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ume 21, 4, 471-485.

Rao, P.A., Beidel, D.C., Turner, S.M., Ammerman, R.T., Crosby, L.E., Sallee, F.R. (2007).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Descriptive psychopatholog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6), 1181-1191.

Rapee, R. M. (1995). Descriptive psychopathology.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New York: Press.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Masten, D. Cicchetti, K. Neu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yan, R.M. and Lynch, J.H.(1989). Emotional autonomy versus detachment: Revisiting the vicissitudes of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Child Development*. 60, 340-356.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Dodge, K.D., Petti, G.S. & Bates. J.E. (1999). Early behavior problem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3), 191-201.
- Sharon M. Nelis, Gordon Rae (2008). Peer attachment in adolescents. School of Psychology. *Journal of Adolescence*, 32, 443-447.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8.
- Scott Brown, L. S., & Wright,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rategies and psychopathology in adolescents.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6, 351-367.
- Snyder, C. R., Smith, T. W., Augelli, R. W., & Ingram, R. E. (1995). On the self-serving function of social anxiety: shyness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70-980.
- Spence, S. H., Donovan, C., & Brechan-Toussaint, M. (1999). Social skill, social outcomes, and cognitive feature of childhoo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8, 211-221.
- Sroufe, L. A. (1996).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1184-1199.
- Steinberg, L., & Silverberg, S.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tein, M.B., Chavira, D.A., & Jang, K.L. (2001). Bringing up bashful baby: Developmental pathways to social phobia.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4, 551-675.
- Strauss, C.C., Frame, C.L., & Forehand, R. (1987). Psychosocial impairment associated with anxiety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35-239.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Van Ameringen, M., Mancini, C., & Farvolden, P. (2003). The impact of anxiety disorders on educational achievement. *Journal of*

- Anxiety Disorders*, 17, 561-571.
- Vartanian, L. S. (1997). Separation-Individuatio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Egocentrism.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17, No. 3, 245-270.
- Warren, S.L., Huston, L., Egeland, B., & Sroufe, L.A. (1997). Child and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637-644.
- Weiss, R.S. (1982). Attachment in adult life. In C.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New York: Basic Books.
- adolescent anxiety disorders and early attachmen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637-644.
- Windle, M. (1994). A study of friendship characteristics and problem behaviors among middle adolescents. *The Society for Child Development*, 65, 1764-1777.
- Wittchen, H.U., Stein, M.B., Kessler, R.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ological Medicine*, Vol. 29 : 309-323 .
- Youniss and Haynie.(1992). Friendship in adolescence. *J Developmental Behavior Pediatr.* Feb; 13(1):59-66.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the middle school and highschool students)
: The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Cho, Hyun 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 whether the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social anxiety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under the early stage of adolesc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under the middle stage of adolescents have the developmental differences as age and differences as gender in each variables, and examine whether have the relations to each this variables. In additons, this study examin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between parents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of adolescent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65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in Seoul and Kyoung-kido. The instrument include : (a) Parent Attachment scale of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Armsden & his colleague, 1991), (b) Peer Attachment scale of 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R (Armsden & his colleague, 1991),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La Greca, 199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e reliability and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correlation analysis, two-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hypothesis were used by SPSS 16.0 statistical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differences as age in All variables, middle school students was higher level than high school students in the parents attachment, and high school students indicated higher level more than middle school students in peer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New of social Anxiety's subtypes. It is shown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evelopmental differences. As a result of differences as gender in All variable, girl student indicated higher level more than boy student in all variable except parents attachment. It is shown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Secon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mong All variable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All variables : the adolescents's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social anxiety. parents attachment had

the high positive-correlation with peer attachment, while the high negative-correlation with social anxiety. Also father attachment had the high positive-correlation with mother attachment, while had the high negative-correlation with Fear of Negative Evaluation of social anxiety's subtypes, and mother attachment had the high positive-correlation with peer attachment, while the higher negative-correlation with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of social anxiety's subtypes. In addition, peer attachment also had the higher negative-correlation with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General of social anxiety's subtypes.

Third, As a result shown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s's parents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it is shown that there were significant a partial mediation effect of peer attachment. namely, parents attachment had not only a 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but also in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mediation by the medium of peer. It shown that the higher parents attachment, the higher peer attachment, after all social anxiety may lower also. Thus both the adolescents's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have shown that they have a crucial role in social anxie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olescents's parents attachment and peer attachment have the developmental differences as age and gender, but there is an important variable which had a 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having close correlation one another.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부 록

설 문 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대인불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되고 철저하게 비밀보장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정답은 따로 없으니,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거나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하신 한 문항 한 문항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솔직하게 답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시고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발달심리학 연구실

지도교수: 이옥경

연구원: 조현영

연락처: 010-9575-2913

hy2913@hanmail.net

※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래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 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는 내 감정을 존중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버지가 “훌륭한 부모” 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버지가 현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 였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아버지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의 의견을 듣 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아버지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봤자 아무소 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아버지는 바 로 알아차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와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는 나에 대해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 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가 생각하 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대해 나와 이야기 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버지는 내 판단을 믿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 에 나는 내 문제로 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⑤
15	아버지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아버지께 대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집에 있을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아버지는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아버지는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가슴속에 털어놓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아버지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어머니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래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 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머니가 “훌륭한 부모” 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머니가 현재 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머니는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듣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어머니는 바로 알아차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와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나에게 대해 기대를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머니 곁에 있으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어떤 일에 대해 나와 이야기 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13	어머니는 내 판단을 믿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로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머니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와 걱정거리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어머니에 대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8	집에 있을 때, 나는 어머니로부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어머니를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어머니는 요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가슴속에 털어놓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머니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와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여러분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 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의 걱정거리에 대해 친구의 의견을 듣고 싶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났을 때, 이를 알아차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친구들은 내 의견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내 문제에 관해 내 친구에게 이야기 할 때 나는 부끄럽거나 바보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 친구들은 나의 걱정거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내 친구들은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친구들은 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들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친구들은 내가 털어놓는 말을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 친구들은 정말 이야기하기 편한 친구들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났을 때, 내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친구들은 내 자신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에 대해 신경을 써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 친구들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내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이를 털어 놓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내 친구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친구들은 내 감정을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내 친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23	내 친구들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내 걱정거리를 친구에게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들이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 때, 친구들은 내게 화난 이유를 물어본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들은 평소에 자신이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나는 얼마나 이런 느낌을 갖는지를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를 골라 √ 또는 ○ 표시를 하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잘 아는 친구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놀림을 당할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잘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수줍음을 탄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람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잘 아는 사람한테만 말을 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1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관심이 나에게 집중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집단 내에서는 조용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걱정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이 거절할까봐 무엇인가 나랑 같이 될 하자고 제안하기가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람들과 잘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피하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들이 나 몰래 내 흉을 볼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0	별로 친하지 않은 애들에게 말을 걸 때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2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때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같이 하자고 부탁하는 것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